

## 멀고도 가까운 길



이 정 규

### 『학력사항』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 『경력사항』

- 현)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외교부 차관보
-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
-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
- 외교통상부 조정기획관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파견
-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참서관
-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3과 과장
-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
- 1987년도 제21회 외무고시 합격

## I. 시작하면서

유난히도 다가왔던 햇살들 그리고 무더웠던 여름들이 한날 지나가버린 먼 옛날의 추억거리로 밖에 기억되지 않는 지금, 微力이나마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 자신을 시험하던 생활의 이야기를 하려 하니 웬지 부끄워지고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시험공부면에서나 人生面에서나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께 나의 단순하고 미숙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겁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시험공부를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外務高試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처음에는 우선 내가 外務高試를 시작하게 된 動機와 過程 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 II. 大學生活과 外務高試

198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3월에 大學을 입학한 후 얼떨떨한 상태에서 大學生活이 시작되었다. 고교때의 규율생활이 몸에 배어서인지 大學에 와서도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그 속에 생활을 맞추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英語討論씨클에 들어갔다. 물론 여자회원들은 일

반 대학생들로서 英語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大學校 學科工夫에 별 취미를 가지 못했던 나로서는 씨클생활이 무척 마음이 들었고 급기야 3학년때는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쳐가며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하면서 3학년이 지나갔고, 4학년때도 졸업을 몇달 앞두고까지는 계속해서 씨클에 나가 생활을 했다. 그 결과 卒業할 때는 專攻에 대한 理解도 부족했고 마땅하게 未來에 대한 計劃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軍隊도 연기를 해왔다. 그러나 졸업의 날짜는 차츰 다가왔고,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선 미봉책으로 本校가 아닌 他校大學院에 入學을 하여 군대문제를 연기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세대학교 외국어 학당에 다니며 유학준비를 시작했다. 지금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지.

다른 것을 마땅하게 할 만하지 못하니까 유학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못나고 무모한 짓인가는 아마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자명하리라.

아뭏든 그 당시는 제 정신이 아니었던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TOEFL과 GMAT를 다 준비해 놓은 8월쯤에 그때까지 내가 원한다면 나의 결정대로 하라고 하시던 부모님께서 意味없이 시작한 나의 유학준비에 제동을 거시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부모님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역시 의욕을 느낄 수 없었던 유학준비를 포기하고, 大學때 약간이나마 마음에 두고 있던 外務高試에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 붓기로 마음먹었다.

### Ⅲ. 外務高試 준비기

外務高試에 대한 생각을 처음하기 시작한 것은 大學 3학년에 올라간 때였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집안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외국어에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外務高試를 선택하게 되었다. 3학년 올라가던 때에 1차시험을 처음 보았으나, 아무런 준비없이 치른 시험이라 기대를 하지 않았다. 다음 해에 또 1차시험에 응시했으나, 이때도 씨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여서 보기 좋게 낙방이었다. 여기서 내가 얻은 교훈은 시험을 단지 장난이나 멋으로 보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준비도 없이 시험에 응한다는 것은 마치 수영을 배운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강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물론 호감을 사려는 사람으로부터의 동정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좌절감인 것이다.

두번의 무의미하고 불성실했던 시험들이 아마도 나를 留學이라는 도피처로 유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도 1984년 가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고시원이란 곳을 찾았다.

생전 처음으로 와서 본 고시원의 인상은 과히 나쁘지만은 않았다. 물론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맑은 공기와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되었다는 느낌이 나의 마음을 더 끄는 것 같았다.

그러나 처음하는 그곳 생활은 맨 처음 그곳에 짐을 들여 놓을 때하고는 많이 달랐다. 처음 15일간은 매우 순조롭게 나아갔다. 심지어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

고 정해진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도 약 2주가 지나자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기 시작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또 같이 어울리게도 되었다. 의지가 굳지 못하고, 놀기 좋아하는 나에게 주위로부터의 유혹은 뿌리칠 수 없는 요소들이었다. 시험을 두달 남기고 이런 생활을 바로 잡고자 짐을 옮겨 보았다. 그러나 마음은 계속 갈팡질팡하며 잡을 수 없었다. 시험일자가 2주일 남았는데도 낮잠을 자는 여유(?)를 부렸을 정도였으니 물론 결과는 모두 예측할 수 있듯이 또 한잔의 苦杯였다. 그전 두번의 시험은 대학 다닐 때였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았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집에 할 말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공부 한답시고 짐까지 싸들고 나와 이런 꼴을 당한 것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軍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무위도식했다는 것이 어찌나 미안하던지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하루 동안 식음을 멀리하기까지도 하였다. 이를 알아차렸음인지 식구들도 더 이상 시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나의 눈치만 보느라 정신 없는 듯 하였다.

그 후 친구들도 만나보고 이력저력 몇 주가지났다. 노는 것도 조금 지나면 지겨운지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집 앞의 사설 독서실에서 1차시험 치르기 2달전까지 버틸 생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였다. 1차시험에 대한 공포는 있었지만 그래도 1차시험을 너무 오래 준비해도 비능률적이라는 말을 듣고 우선 2차시험

과목을 준비하였다. 외국어는 평소에 관심있는 부분이었으므로 별로 무리없이 기본틀에 올랐다. 經濟學은 대학때 전공이니까 기본서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갔다. 나머지 4과목 중에서 선택은 財政學을 하기로 하였다. 아무래도 학교 다닐때 강의를 몇번 들은 과목이기 때문이었다. 나머지는 國民倫理, 國際政治學, 國際法이었는데 그 중 국민윤리는 공부 안해야 더 점수가 잘 나온다는 말대로 우선 옆으로 제쳐 놓았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國際法이었다. 강의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전공하고도 너무 동떨어진 과목이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아몽든 외국어와 國民倫理를 제외한 4과목의 기본서를 평균 2회독씩 하면서 전체적인 냄새를 맡았다. 물론 외국어는 평소에 조금씩 하면서 다른 공부를 하였다.

1차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번에는 약 3개월을 잡고 다시 경기도 광주의 고시원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갔다. 1차시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시켜가고 있을 무렵, 1월 5일쯤 집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께서 TV를 보시다가 外試의 시험일자가 앞당겨졌다는 뉴스를 듣고 알려 주신 것이다. 순간 너무도 당황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됐다는 생각에 더욱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雪上加霜으로 軍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시험은 약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문득 “最善을 다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시도를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그 후의 결과에 대하여는 초연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最善이라는 의미

는 사람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까지 온힘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1주일은 생활의 균형을 잡으며 마지막 정리를 하였다.

1986년 2월 9일, 전화 벨소리와 함께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합격소식이 전해졌다. 1차시험에 여러번 낙방한 나에게는 특히 합격소식이 어느 누구의 2차합격보다 반갑고 기뻐다. 그로부터 2차시험은 약 1달후였다. 비록 준비는 안됐지만 얼마만큼만 작성 했을때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과목에 대한 나의 공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차시험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 먹었다. 우선 첫 시간인 國民倫理는 나름대로의 상식을 동원하여 조리있게 쓰려고 노력했다. 다음 시간은 英語,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제일 자신있게(오히려 마음편하게)치렀다. 다음 날은 國際法과 經濟學이었다. 國際法은 모르는 문제가 50점짜리 나와서 과락을 예상했다. 經濟學은 무난하게 치렀다. 세째날은 國際政治學과 佛語였다. 두 과목 모두 큰 실수없이 치렀으나 佛語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 날 선택은 財政學이었는데 經濟學과 중복되는 내용의 문제가 50점짜리로 나와서 별 문제없이 끝냈다. 물론 시험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험성적을 알아본 결과 너무도 아깝게 떨어졌다(2차시험에 26명을 선발했는데 28등을 하였고, 科落은 없었다). 기대 이상의 결과에 대하여 자못 우쭐해지는 기분을 억제할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1차시험에서 하도 당했

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또 1차시험의 악몽속에서 헤어날 수 못하리라는 생각에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서 경기도 광주 고시원으로 내려갔다.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의욕속에서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본다가보다는 기존의 책들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는 방법으로 일관했다. 책을 중심으로 그 속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서브노트는 피하고 책에 꼭 필요한 부분만 첨가하고, 되도록 단순화시키려 노력하였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며칠 동안 식사하고 잠자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잘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약 5일 내지 일주일간 마음이 잡히지 않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전의 날을 약 1개월 남기고 불안과 초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5일간을 계속 버티려 끌어 보았지만 아까운 시간만 갈 뿐이었다.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에 연락을 하고 집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집 앞의 독서실은 분위기면에서 경기도 광주의 고시원보다 못하였지만 집안 식구들을 매일 대할 수 있고 그로부터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긴장은 되었지만 편한 마음으로 결전의 4일간을 대방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서울학습관에서 보냈다. 어머니께서는 시험을 보기 시작한 날부터 3차시험까지의 최종 발표가 나기까지 약 2개월간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을 드리셨다. 아마도 이 때문에 몇년은 더 늙으셨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의 덕택으로 2차시험에 무난히 합격되었다. 4월 8일 3차시험을 치른 후 성적을 열람하니 성적도

상위권이어서 3차시험의 결과는 별 걱정하지 않았다. 4월 15일 최종발표가 나던 날 어머니의 활짝 핀 얼굴에 만연한 미소 속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정신적 고통들이 모두 녹아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날 가장 생각해 주시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격려와 정성이 없었더라면 작으나마 이런 결실을 이런 결실을 이루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들에 대한 나의 고마움은 내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항상 잊지 못할 것이다.

#### IV. 마치면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열하였으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 아래서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意志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外試의 경우 매우 제한된 인원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20명이 아니라 1명만을 뽑아도 합격할 수 있는 정신자세와 의지로 시험준비에 임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